

# 우리 편목 업무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

노 지 현

(부산대학교 교수)

## 〈목 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관찰과 체험
3. 미국도서관의 편목 업무 현황
  - 3.1 업무 구조와 방식
  - 3.2 업무 수행의 특징
  - 3.3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4. 우리 편목 업무에 대한 기본적 의문
  - 4.1 구조와 방식에 대한 의문
  - 4.2 관행과 제도에 대한 의문
5. 논의를 마치며

## 1. 논의를 시작하며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 현장에서 생산한 목록의 품질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해 보는데 관심을 가져왔다. 품질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 좋고 나쁨’을 가려내기보다 목록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목록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도서관이용자가 느끼는 목록의 ‘유용성’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심지어는 목록의 ‘존재 가치’와 도서관 편목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이처럼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였다. 목록의 표기나 내용에서의 오류 혹은 데이터의 누락과 같은 기본적인 ‘부실함’에 더해, 실제 자료를 대체하기에 턱없이

빈약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과연 이와 같은 부실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가 몹시 궁금해졌다. 그리하여 우리의 목록이 안고 있는 부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을 앞세운 ‘시장논리’와 일관성을 앞세운 ‘형식주의’가 우리 도서관의 편목 업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아가, 원자료에 대한 대체물로 기능하기에는 현재의 목록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듯 부실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언제부턴가 필자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편목 업무가 지니는 ‘적실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현재 편목 업무는 ‘기술’과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협공을 받으면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대 도서관이 출현한 이래로 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을 보장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편목 업무가 점차 단순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로 평가받더니, 급기야 업무 자체의 의미와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근자에 들어 디지털 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이 확산되면서 기존에 행해지던 편목 업무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형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관의 편목 업무가 ‘도서관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지적 도구를 생산하는 고도의 전문 과정’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듯 편목 업무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점차 ‘뒷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서관목록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정보검색 도구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자, 필자는 해방 이후 우리 도서관계의 ‘모델’이 되어 왔던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내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이 아니라 편목 업무에 내재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과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될 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온 우리 편목 업무의 방식과 내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리고 이 결과는 뿌리조차 잃고 표면적인 논리에 얽매어 있는 우리 도서관계의 의식과 행태, 특히 편목 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쇠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어떠한 철학과 사상, 이론에 기초하여 편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접하면서 편목 업무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자는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고, 다음 이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그들과는 제반 여건과 환경이 다른 우리 도서관의 경우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이용자의 요구 변화에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여 왔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편목 업무가 우리 문화와 현재의 정보환경의 변화를 잘 반영하면서 적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관찰과 체험

필자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록이 최고의 품질을 갖추어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용한 정보도구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편목 정책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늘 개념적이고 원칙적인 조사와 분석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각종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이고 피상적으로 밖에 접할 수 없었던 미국 도서관계의 실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목록과 관련한 그들의 철학과 원리 그리고 실무적 관행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 도서관계에 필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지난 6개월간 미국 서북부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인 워싱턴대학의 문헌정보학 대학원 (University of Washington, Information School)에 연구원으로 체제하면서 이 지역의 도서관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필자가 체제하였던 워싱턴주의 도서관들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70년대 중반 도서관자동화 초기 시절에 OCLC나 RLIN과는

달리 지역네트워크로 출발하여 기술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역단위 도서관협력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WLN이 그것이다.<sup>1)</sup> 이에,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두루 견학한 후<sup>2)</sup> 가장 대표적인 4곳을 선정하여 그들은 어떻게 편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편목시스템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집중 관찰한 곳은 규모나 예산, 인력 등의 면에서 미국 서북부 지역에서는 물론 미국 전체 연구도서관 내에서도 상위권에 손꼽히는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과 미국 내에서는 중위권 정도이지만 우리의 상황과 견주어 볼 때 국내 최상위 대학도서관과 비슷한 수준의 ‘워싱턴주립대학(Washington State University)’이었다.<sup>3)</sup> 또한, 워싱턴주 최대 도시인 시애틀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으로서 시애틀市 23개 공공도서관의 편목 업무를 일괄 처리하고 있는 ‘시애틀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과 워싱턴주 킹카운티 지역 42개 공공도서관의 기술적 업무(technical service)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센터를 두고 있는 ‘킹카운티도서관시스템(King County Library System)’이었다<sup>4)</sup>. (주요 현황은 <표1> 참고)

- 1) WLN (Washington Library Network)은 1985년에 ‘Western Library Network’으로, 그리고 1990년 7월에는 1,100만 서지레코드로 이루어진 방대한 종합목록을 보유하면서 비영리조직인 ‘WNL, Inc.’로 독립하였다. WLN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은 서지레코드에 대한 확실한 품질 관리에 있었다. 그들은 20년 이상 서지레코드의 품질관리와 강력한 표준화를 바탕으로 급성장해 온 것이다. 그러다 1999년 1월 OCLC와 전격 합병이 이루어져 지금은 ‘OCLC Lacey Product Center(OLPC)’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 2) 필자가 체제하였던 워싱턴주는 한반도의 80% 정도 되는 면적에 약 59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는 모두 63개 대학의 101개 대학도서관과 65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335개관(분관 포함), 그리고 의학도서관 48개관, 법률도서관 56개관, 산업체 도서관 27개관, 역사/족보 도서관 6개관, 자치정부도서관 5개관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The State Library, *Directory of Washington Library*. Olympia, Washingt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Library Division, 2003.
- 3) 이들 두 대학은 주와 연방 기금에 의해 운영되는 주립대학으로서 워싱턴주에서 박사학위 과정까지 운영하는 유일한 연구 중심 대학(Research University)이다. ‘연구도서관협의회’ (ARL)에 의하면, 미국 114개 연구도서관 중 워싱턴대학은 지난 10년간 평균 12위, 그리고 워싱턴주립대학은 평균 89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전체 1,600여개의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114개의 연구도서관(Research Library)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Statistics 2001-2002*, Washingto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03

<표 1> 관찰대상 도서관의 현황 (2002년 기준)<sup>5)</sup>

	개관 연도	총 도서 관수	이용 대상자 수	직원 수 (전문/보조)	연간 총수입	연간 총지출			소장자료					연간 장서 증가량
						자료구입비	직원임금	기타*	단행본 (책)	연속 간행물(종)	영상 자료(점)	전자 자료(점)	기타	
워싱턴대학	1861	18	50,002	364 (144/220)	\$30,867,887	\$ 9,091,300 (29.5%)	\$17,042,910 (52.2%)	\$ 4,733,677 (15.3%)	6,051,252	56,431	1,481,702	12,080	-	139,388
워싱턴주립 대학	1892	9	25,378	146 (50/96)	\$12,397,511	\$ 5,213,370 (42.1%)	\$ 5,882,309 (47.2%)	\$ 1,331,832 (10.7%)	2,116,080	31,781	383,146	-	-	45,187
시애틀 공공도서관	1890	23	570,800	479 (138/341)	\$77,514,863	\$ 3,965,062 (5.1%)	\$27,095,720 (35.0%)	\$46,454,081 (59.9%)	1,901,917(책)		115,721	3,048	507	238,000
킹카운티 도서관시스템	1942	42	1,151,860	691 (192/499)	\$62,025,180	\$ 7,690,783 (12.4%)	\$38,427,035 (62.0%)	\$15,907,302 (25.6%)	3,143,101(책)		432,776	9,500	612,006	-

\* 기타 지출 비용은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서지유틸리티 접속료 및 사용료, 건물유지비 등임.

\*\* 하이픈('-')은 자료의 수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임

(가령, 워싱턴대학은 기타 자료로 필사본 6만5천점, 지도 35만점, 마이크로필름 740만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처럼 필자가 선정한 도서관들은 지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아주 클 뿐 아니라 편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식이 상당히 체계적이면서 안정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그 성격상 구분되는 면이 있고, 더구나 제한된 지역의 일부 도서관을 조사한 결과만으로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수용하면서 이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보다 지역이나 관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미국 도서관 현장의 보편적인 실재를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편목 업무는 다음과 같은 세 과정을 통해 조사

- 4) '킹카운티도서관시스템'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적 업무(technical service)와 이용자 서비스 업무(public service)를 분리하여, 기술적 업무는 서비스 센터에서 일괄 처리하고 이용자 서비스 업무는 작은 마을 단위로 흩어져 있는 42개의 분관도서관에서 담당하는 '분리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시애틀공공도서관'은 단일 도서관으로서 기술적 업무와 이용자 서비스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만, 시애틀 지역에 있는 23개 공공도서관의 대표도서관(Central Library)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도서관에 대한 기술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도 하다
- 5) 통계는 2002년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이다. 단,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통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누락된 항목은 개별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여 조사하였다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nes, *Academic Library Trends and Statistic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2 ; Washington State Library, *Washington Public Library Statistical Report* Olympia, Washington The Library, 2002

하였다. 첫째, 도서관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와 편목사서와의 사전 서신 교환(이메일)을 통해 편목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수집하였다. 우리와는 제반 환경이 다른 그들의 도서관 문화와 업무 환경을 사전에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실질적인 편목 업무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절차와 방법을 직접 관찰하고, 더불어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어떤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편목 업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실제 도서관 현장에 뛰어들어 보다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행태적 특징을 우리 도서관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 3. 미국도서관의 편목 업무 현황

#### 3.1 업무 구조와 방식

미국 도서관에서는 편목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편목 업무는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가장 많은 도서관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령,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지난 1992년 완전수준의 서지레코드를 만드는데 투입된 시간이 단행본은 1.32시간, 연속간행물은 1.97시간이었으며,<sup>6)</sup> 미국 도서관들이 1997년 단행본 자료의 편목과 제장비 작업에 지출한 비용은 평균 48.19달러(약 58,000원)이었다.<sup>7)</sup> 또한, 지난해 LC에서 생산된 목록은 단위 레코드당 평균 94.58달러(약 115,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sup>8)</sup> 이처럼 편목 시간과 비용의 절대적

6) Lori L. Osmus and Dilys E. Morris, "Serials cataloging time and costs: results of an ongoing study at Iowa State University", *Serials Librarian* vol. 22, no. 1/2 (1992), pp 235-248.

7) Scott Bennett, "Just in Time Scholarly Monographs",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vol. 4, no. 1 (September 1998), <http://www.press.umich.edu/jep/04-01/bennett.html>.

수치가 높다보니 편목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오랫동안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편목 비용과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단계에서 미국 도서관의 편목 업무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들의 업무 과정에 존재하는 원리와 질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편목 업무는 복본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그림1>의 '업무 흐름도' 참고). 자관 DB를 확인한 결과, 레코드가 있는 경우 소장정보만을 추가한 후 작업을 끝낸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OCLC나 RLIN과 같은 서지유틸리티를 검색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서지유틸리티에 레코드가 이미 존재할 경우에는 가장 적합한 레코드를 선택하여 자관 DB에 다운로드 받아 소장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일반적으로 이러한 copy cataloging은 편목사서가 아니라 보조원(library technician)들에 의해 처리된다.<sup>10)</sup> 기계적이고 단순반복적이며 비전문적인 절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렇게 보조원들에 의해 copy cataloging되는 업무의 양은 전체 편목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8) Library of Congress,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rectorate Annual Report, Fiscal Year 2002". <http://www.loc.gov/catdir/catdirfy02.html>.

9) 이 때, 단위 도서관에서는 자관 이용자의 요구를 감안하여 그들에 대한 최상의 'access'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에 수정을 가하기도 한다

10) 미국 도서관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은 앞의 <표1>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전문사서'와 '사서 보조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혹은 자격유무에 따라 전문사서와 사서 보조원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며, 이들의 상호 보완 관계에 의해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도서관 전체에서, 이들 '사서 보조원'의 수는 전문사서의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많다(아래 표 참조). 기술적인 업무나 비전문적인 업무는 대체로 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서 보조원들이 처리하고, 사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업무분담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분담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편목 과정에서 더욱 확연하게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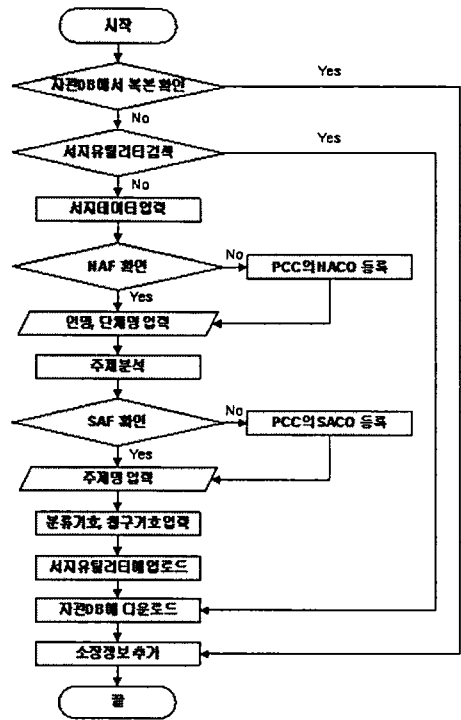
※미국 도서관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총 수 (2002년 10월 기준)

	전문사서의 수	사서 보조원의 수	계
대학도서관	24,815	71,894	96,709
공공도서관	29,519	100,583	140,102
학교도서관	66,471	99,557	166,028
계	120,805	272,034	392,839

(출처: ALA, "Numbers employed in libraries", <http://www.ala.org>)

보조원들이 서지네트워크를 통해 copy cataloging 할 수 없는 자료나 copy cataloging 에서 문제가 발생한 자료들은 편목사서들이 전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편목사서들이 직접 담당하는 original cataloging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10%를 넘지 않는다. 서지네트워크를 통한 '분담 편목(shared cataloging)'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대학의 경우, 2003년 한 해 동안 편목한 단행본 자료 77,001건 가운데 이 도서관의 편목사서에 의해 직접 편목된 레코드는 단지 5,579건 (7.2%) 뿐이었다.<sup>11)</sup> 분담 편목을 통해 편목사서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편목사서들은 품질의 '고급화'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목록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품질이 우수한 레코드들이 서지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단위 도서관에서의 업무 생산성과 비용 절감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는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분담 편목 방식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우리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저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편목 업무는 OCLC나 RLIN과 같은 서지유틸리티를 검색하여 레코드가 있으면 바로 copy cataloging을 하고, 레코드가 없으면 서지유틸리티의 '신규 레코드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riginal cataloging을 하게 된다. 네트워크 상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다. original cataloging 과정을 통해 생성된 레코드는 서지유틸리티에 먼저 등록되고, 이렇게 등록된 레코드를 역으로 자관 DB에 전송받아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분담 편목은 단위 도서관에서 자체 시스템을 기반으로 레코드를 생산한



<그림 1> 업무 흐름도

11) 워싱턴대학이 지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편목한 자료 중 신규 구축된 단행본 자료는 original cataloging이 5,579건 (7.2%), complex copy cataloging이 24,063건 (31.3%), quick copy cataloging이 42,801건 (55.6%), minimal-level cataloging이 4,558건 (5.9%)이었다.



후 이를 서지네트워크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지유틸리티 체제 내에서 레코드를 직접 만든 후 자관 DB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편목 업무가 철저히 네트워크에 기반하다 보니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단위 도서관이 사용하는 목록규칙의 차이와 실제 편목 과정에서 이러한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는 결국 네트워크를 통한 분담 편목을 저해하는 일차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편목 업무의 전 과정은 각종 규칙과 규정에 의해 강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업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규칙과 규정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령, 서지데이터를 기술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AACR2R'과 'LCRIs'<sup>12)</sup>가, 주제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준거로서 'SCM: SH (Subject Cataloging Manual: Subject Headings)'이,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코드화하기 위한 구조화된 포맷으로서 'MARC21'이 표준도구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OCLC의 Bibliographic Formats and Standards와 같이 서지유틸리티에 따라 별도의 지침까지 지정해 놓고 있다.

서지데이터는 이러한 다양한 규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되지만, 이들 데이터 중 인명 및 단체명 그리고 주제명은 전거파일(Authority File)에 의해 다시 통제된다. 인명 및 단체명은 "Name Authority File(NAF)"에 의해, 그리고 주제명은 "Subject Authority File(SAF)"에 근거한다. 그러나 해당되는 인명이나 단체명, 주제명이 NAF 혹은 SAF에 없는 경우에는 미의회도서관에서 운영하는 PCC (Program for Cooperative Cataloging)의 NACO (Name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와 SACO (Subject Authority Cooperative program)를 통해 새로운 용어를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의 용어를 추가·변경한 후 이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결정하게 된다.<sup>13)</sup> 이것은 동일한 인명이나

12) 서지데이터를 입력할 때에는 영미목록규칙(AACR2R)에 준하여 기술하지만, AACR2R만으로 적용할 수 없는 예외나 규칙에 대한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LC에서는 Library of Congress Rule Interpretations (LCRIs)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LCRIs가 LC의 편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미국 내에서 LC가 가장 많은 서지레코드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서지유틸리티를 통해 LC의 레코드들이 상당수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개별 도서관에서는 AACR2R 외에 LCRIs도 준수하도록 권유받고 있는 실정이다.

13) 서지레코드에 포함될 인명 및 단체명, 주제명에 대한 전거파일은 개별 단위도서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의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National Level)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PCC를 운영하는 주축은 미의회도서관이지만 NACO, SACO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입

단체명, 주제명이 다양한 표기방식으로 기술되어 검색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지데이터를 기술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original cataloging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주제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실제 편목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절반 이상이 ‘주제분석’ (Subject Analysis)에 소요될 정도로 이 과정은 어렵고 세심한 작업이다. 자료의 내용을 몇몇 용어로 명시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의 품질을 향상하고 목록의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제명 데이터를 결정하는데 여전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주제별’ 편목사서제를 도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 과정은 결정된 주제명에 근거하여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분류작업은 주제분석 작업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리 힘든 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주제명에 대해 분류기호가 배정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주제명으로부터 분류기호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Electronic Multi-Tasking System”)도 개발되었다.<sup>14)</sup> 분류기호를 부여하고 나면 original cataloging이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력하고 갱신하는 것은 개별 도서관에 소속된 편목사서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속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은 이미 미국 도서관계에서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단위 도서관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단위도서관마다 매년 PCC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목표치를 정해두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사뭇 인상적이었다. 회계연도 2003년 동안 이처럼 생성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신규 생성된 Name Authority	신규 생성된 Series Authority	신규 생성된 Subject Headings	갱신된 Name Authority	갱신된 Series Authority	갱신된 Subject Headings
2003년	167,163	9,324	3,509	48,710	2,373	420
총계	2,013,481	98,659	28,317	488,875		6,674

(출처: Library of Congress, “PCC Statistics”, <http://www.loc.gov/catdir/pcc/stats/totalstatsfy03.html>)  
 14) LC에서는 ‘주제명’(LCSH)과 ‘분류기호’(LCC)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첫 번째 주제명표목으로부터 분류기호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아직 완전성과 정확성의 결여로 단위 도서관의 활용도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프로그램은 LC의 「Classification Web」 (<http://classweb.loc.gov/Aut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 투입된 시간은 단위 레코드당 평균 1시간이 넘는다. 그러다보니 편목사서 1인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original cataloging은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당연히, 단위 도서관에서는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분담 편목을 통해 단위 도서관들 간의 중복 노력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 3.2 업무 수행의 특징

그렇다면, 이들의 편목 업무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편목 업무를 통해 발견된 미국 도서관계의 실상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의 실무적 관행은 어떠하였는가? 이러한 의문은 관찰을 통해 드러난 피상적인 사실보다 더욱 더 밀착된 시각과 넓은 안목으로 업무를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그들이 편목 업무와 도서관목록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정신과 철학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필자는 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문이 들 때마다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그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이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특징은 단연 서지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구조였다. 필자가 궁금해 했던 그들의 업무 처리 능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고, 개별 도서관은 자신들이 만든 네트워크의 한 노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이것은 실질적인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들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동일한 가치와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편목 업무를 ‘기능적’으로 연결시켜 ‘합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편목사서들은 불필요한 중복 노력과 업무 부담을 대폭 줄임으로써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단위 도서관에서는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업무 구조는 인력의 활용 면에서도 두각을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편목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전문 편목사서와 보조원의 ‘2중 구조’로 구분된다(<표2>의

업무 현황 참조). 전문 편목사서는 original cataloging을, 그리고 보조원은 copy cataloging을 전담하고 있다. 비전문직 보조원들이 copy cataloging을 통해 하루 50-60 건씩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소의 인력으로도 업무 운영이 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시애틀공공도서관은 6.6명<sup>15)</sup>, 킹카운티도서관시스템은 14명이 각각 23개관과 42개관의 모든 편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서 600만권에, 자료구입비만 연간 900만불(약 11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워싱턴대학만이 19명(편목사서 7명과 보조원 12명)으로 비교적 많은 인력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단위 도서관마다 편목 업무에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고 있거나 아예 지역별로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sup>16)</sup>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단위 도서관에서의 서지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 중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네트워크 사용료로 지출되고 있다. 물론 이 비용에는 copy cataloging을 위한 데이터 검색료 및 다운로드 비용 외에 참고봉사비, 상호대차비, 직원교육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표2>에 나타나 있듯이, 이러한 비용을 모두 합쳐 워싱턴대학과 워싱턴주립대학은 연간 20만불(2억3천만원), 그리고 시애틀공공도서관과 킹카운티도서관시스템은 연간 10만불(1억2천만원) 내외를 서지네트워크에 지불하고 있다.<sup>17)</sup> 이 중 편목 비용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sup>18)</sup> OCLC나 RLIN이 급격히 성장하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보다 큰 서지네트워크로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보다 방대한 규모의 서지데이터베이스

15) 6.6명은 전임 인력 6명과 파트 타임 1명을 계상한 것이다.

16)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은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자료가 일정 정도 중복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편목 업무를 개별 도서관에서 각각 처리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

17) OCLC의 경우, 편목 비용은 단순히 레코드 당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OCLC Connexion' 검색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요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original cataloging을 생성하여 OCLC 데이터베이스에 기여하게 되면 레코드 1건당 3.99불을 'credit'으로 지불받게 된다. 따라서 최종 서지유틸리티 비용은 이러한 상호 거래를 집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대학이 워싱턴주립대학에 비해 전체 편목 양과 OCLC를 통한 copy cataloging의 양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지유틸리티 사용료가 더 적은 까닭은 워싱턴대학의 original cataloging의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가령, 시애틀공공도서관에서 서지네트워크에 지불한 금액 12만불 중에서 편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48,961불(약 5,780만원)이었다.

를 이용함으로써 개별 도서관에 돌아오는 업무 부담과 비용을 보다 줄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sup>19)</sup>

<표 2> 편목 업무 현황 (2003년 통계)

	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수	담당부서	편목사서 수			Original Cataloging 비율	연간 서지유틸리티 이용료
			전문	보조	계		
워싱턴대학	3,328,665	Monographic Service Division Serials Services Division	7	12	19	7.2%	\$188,176
워싱턴주립대학	1,721,297	User Support Services	7	4	11	6-7%	\$200,883
시애틀공공도서관	881,773	Bibliographic Service	4	2.6	6.6	약 5%	\$120,246
콩카운티도서관시스템	700,000	Technical Services	7	7	14	약 10%	\$ 85,000

이러한 업무 구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과 단위 도서관 및 편목사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도서관에서의 편목 업무를 살펴보면, 편목사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목사서들은 업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단위 도서관을 벗어나 네트워크 상에서 시시각각 논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편목 정책이나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칙이 국가대표도서관인 LC나 미국도서관협회와 같이 권한을 가진 몇몇 주체에 의해 결정되어 하달되는 ('top-down' 방식)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도서관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편목사서들이 참여하여 논의한 후 그 결과가 정책이나 규칙에 직접 반영되고 ('bottom-up' 방식)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용자의 요구나 학문의 세분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갱신될 필요가 있는 LCC나 LCSH의 경우 갱신 작업은 단위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편목사서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편목사서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LCSH Subject Change Proposal Form"이나 "LC Classification Proposal Form" 등에 작성하여 LC에 즉각 보고한다. 그러면, LC의 편목분과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19) 이 지역의 도서관들이 레코드의 품질 면에서 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해온 WLN을 OCLC와 합병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업무 부담과 그로 인한 비용 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합병이 이루어진 1999년 이후 레코드의 품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편목사서들도 있었다.

조사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편집팀이 결정된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매주 'Weekly list'로 발간되어 각 도서관에 배포되고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사소한 규칙이나 규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과정에 따라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이나 규칙은 도서관 현장의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고, 도서관 현장은 이러한 정책과 규칙을 통해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 온 것은 바로 편목사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LC의 베테랑 편목사서에서부터 갓 편목 업무를 시작한 신참 편목사서들, 심지어는 편목사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상 업무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listserv'<sup>20)</sup>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생산된 목록에 대한 자체 품질 평가나 업무의 생산성을 보다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된다. 이 자체가 바로 편목사서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이며, 동시에 고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원동력인 셈이다. 이를 통해, 편목사서들은 목록 생산자이면서 품질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서지네트워크의 목록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었고, 단위 도서관에서의 편목 업무는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최근 정보환경의 변화를 편목 업무에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 3.3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지금 도서관계에 불어 닥친 디지털의 광풍은 매섭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유입에 당면하여 우리 도서관계는 지금 '디지털'과 '첨단기술'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목적과 방법을 혼돈하고, 전통과 새로운 기술 앞에서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렇

20) 편목사서들을 위한 리스트서브의 명칭은 "Autocat"이다. 이것은 편목과 관련된 문제나 새로이 등장하는 각종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일종의 정보교환센터(clearinghouse)라고 할 수 있다. Autocat은 메일링리스트에 간략한 전자우편 메시지(listserv@listserv.acsu buffalo.edu)를 보냄으로써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용자의 이름을 추가하여 후에 전자우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다면, 미국도서관계는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편목 업무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떤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에 주목해 보았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는 도서관장서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전자정보원이 기존의 도서관장서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소장자료의 원문이나 멀티미디어 정보가 전자 형태로 변환되어 온라인으로 직접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장서의 개념이 이처럼 변하다보니 당연히 편목 업무에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집된 자료의 유형 변화는 이들 자료에 대한 기술 방식과 접근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미국도서관 현장의 반응은 그리 심각하거나 조급해 보이지 않는다. 편목 업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다 빠르게(faster), 보다 저렴하게(cheaper), 그리고 보다 좋게(better)”라는 모토 아래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도서관 내에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팀들이 생겨났다는 사실 뿐이다.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이처럼 담대한 이유는 그들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다. 편목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중견 사서들과의 인터뷰에서, 필자는 그들이 이미 30여년 전에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그들은 1970, 80년대에 ‘비도서자료’(non-book materials)의 유입과 더불어 이들 자료에 대한 처리 방안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자체적인 혹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간 경험이 있었다.<sup>21)</sup>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그 결

21)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비도서자료의 비중이 전체 자료의 20% 이상으로 급증하게 되자 이들 자료의 처리방안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도서관계에서는 자료 유형별 특성과 적용 범위를 규명하고, AACR2를 통해 비도서자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힘들게 성사시킨 바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시기가 편목 업무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와 시련이 닥쳤던 때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 때의 어려움과 경험은 다음의 자료에도 잘 소개되어 있다. Carolyn Frost, *Cataloging Nonbook Materials: problems in theory and practice*. Littleton, Colo. Libraries Unlimited, 1983 ; Martha M Yee, "Integration of Nonbook Materials in AACR2",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3, no. 4 (Summer 1983), pp.1-18.

과, 현재 그들의 관심은 '대체' 시스템을 서둘러 개발하는데 있기 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자원을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에 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기술과 이용자들의 기존 행태를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하여 전통적인 목록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보다 많이 쏠려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들의 대응 전략은 디지털 자원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즉,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자료가 도서관 정책 및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수집 정책' (Acquisition Policy)이 마련된다. 어떤 주제에, 어떤 유형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설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 수집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편목 정책' (Cataloging Policy)을 결정한다. 편목 정책은 디지털 자원을 유형별로 '유목화'하고, 기존 자료와의 유사성 및 상이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방식에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각 유형별로 어떤 형식과 내용에 따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변화에 대한 전략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가 모든 도서관에서 똑같이 목도되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필자가 방문·관찰하였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연구도서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워싱턴대학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는 편이었다. 최근 '메타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자 일부 편목사서들이 Metadata Implementation Group (MIG)을 결성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의 조직 체계도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웹을 통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자원 (e-resource)과 새로운 메타데이터 체제를 요구하는 이미지 정보 (Digital Initiatives) 등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실험해 보고 있다. 실험과 개발에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워싱턴대학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편목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최근에 실험한 내용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해 보는 것이었다. 가령, 외부에서 생산된 디지털 자원을 자관 DB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자료의 유형을 ① '이용자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료, ② 실물자료에 대한 온라인 버전, ③



연관 판(version)의 온라인 버전, ④ 부분적인 전자자료, ⑤ 전자자료를 동반하는 경우 등으로 우선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MARC에 직접 URL을 입력하여 접근 경로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혹은 특정 자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메타데이터 형식을 적용해 보기도 한다. 이 때, 각각의 포맷에 따라 기술될 데이터의 내용과 수준도 세부적으로 결정한다. 이 밖에, 웹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원은 OCLC의 CORC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레코드를 구축하고 있다.<sup>22)</sup>

이처럼 과거의 시행착오로부터 얻은 경험과 교훈에 근거하여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 실제 그 유용성을 실험해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전히 어려움은 남는다. 현재 이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자원을 기존의 시스템에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개발하고 실제 적용해 보는데 투입될 ‘인력’을 확보하는 것<sup>23)</sup>과 새로운 메타데이터 형식을 도입하고자 할 때 아직까지 자동화된 tool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자원에 대한 표준화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단위 도서관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각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의 대응 방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목록의 기능을 보다 확장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2) OCLC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CORC (Cooperative Online Resource Catalog)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의 인터넷 정보자원에 대한 목록을 분담편목 방식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OCLC를 이용하는 회원도서관에서는 MARC 혹은 메타데이터 표준인 Dublin Core를 이용하여 레코드를 만들고 있다.

23) 워싱턴주립대학은 기존의 장서관(수집업무)과 기술봉사(구입업무, 편목업무, 연속간행물 처리 등), 참고봉사의 3조직에다 ‘Digital Service/Collection’을 더해, 디지털 자원의 수집, 조직, 서비스, 시스템 등을 전담할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대학은 이러한 전담부서 없이 단행본 편목사서, 연속간행물 편목사서, 특수장서를 담당하는 사서, 참고사서 등으로 구성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두 대학은 네트워크를 통한 분담편목으로 일부 편목사서들을 새로운 영역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에 더 투입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 4. 우리 편목 업무에 대한 기본적 의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해방 이후 우리 도서관계의 모델이 되어 왔던 미국 도서관에서 편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식과 과정에 대해 필자의 관찰과 경험을 토대로 소개한 것이다. 그동안 피상적이고 간접적으로 접해왔던 편목 업무를 실제 보고 느낀 결과, 그들의 업무 구조와 절차는 필자가 막연히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편목 업무는 상당한 智力을 요구하는 지적 작업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철학과 원리 그리고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 왔던 그들만의 오랜 전통과 가치관이 저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편목 업무는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편목 업무는 어떠한가? 지금부터는 우리 도서관에서 편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식과 그러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 편목 업무의 적실성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 4.1 구조와 방식에 대한 의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성격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비스 직종의 업무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 '고객'이 변하고, 그들의 '요구'가 변해가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지적 문화와 정보행태를 그대로 대변해야 하는 편목 업무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도서관목록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가 변하고 있고, 굳이 도서관목록이 아니더라도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체 수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현재의 목록은 단순한 '존재리스트'나 '소장리스트' 혹은 '식별리스트'의 기능을 넘어, 포괄적인 서지도구이자 우수한 탐색도구의 기능을 갖추도록 강요받고 있다. 나아가, '품격'을 갖춘 서지도구로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우리 도서관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편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미국 도서관과 비교해 볼 때 양적인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도서관의 규모나 업무 양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편이다. 대학도서관을 사례로 조사한 결과, 편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도서관의 전체 인력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편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서의 장이나 전산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편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보더라도 작은 도서관은 2명 정도,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은 십수 명이 편목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인력의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도서관의 편목 업무가 질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와 방식이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데 있다.

가령, A도서관의 경우 현재 5명의 편목사서가 1년 동안 35,000-40,000책을 처리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연간 7,000-8,000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에 24책 정도, 한달에 600책 내외를 편목사서 1인이 처리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B도서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A도서관의 절반 정도의 인원(2.5명)<sup>24)</sup>이 비슷한 양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B도서관의 편목사서가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 양은 50책 내외이다. 이는 10분에 1책씩 편목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반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sup>25)</sup> 형편이 이러하다보니 도서관에서는 외부인력이라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A도서관에서는 연간 처리해야 할 자료 중 절반 정도는 편목

24) B도서관의 경우, 수서계의 '정리' 담당 사서가 총 5명이지만, 직접 편목 업무를 하지 않는 수서과장과 수서정리계장을 제외한 3명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된다. 이 중 2명은 동양서 편목작업을, 나머지 1명은 서양서 편목작업과 수서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결국 총 5명의 인원 중 편목작업을 하는 사람은 2.5명인 셈이다.

25) 이 중 original cataloging과 copy cataloging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조사해 보고 싶었지만, 우리 도서관의 경우 이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한 수치는 이 두 방식이 혼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copy cataloging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도서관도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편목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opy cataloging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도서관마다 기술규칙이나 형식이 다소 상이함으로 인해 copy cataloging을 하더라도 데이터의 수정 작업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사서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외부에서 동원된 인력에 의해 편목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또한, C도서관에서는 자료구입업체에서 파견한 2명의 외부인력을 활용하여 단순 장비작업과 같은 업무 '보조'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도서관과 같이 외부용역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부 인력만으로 과중한 업무를 꾸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록의 품질을 고급화하기는커녕 '소장리스트'로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sup>26)</sup> 편목 업무가 정보자료의 외적 속성을 규칙에 맞게 재현시키는 기초적이고 단순한 작업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편목 업무는 지식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적' 과정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단순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도서관 안팎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質보다 量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 경영논리와 서비스의 내용보다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우리 도서관계에 폭넓게 퍼지면서, 편목 업무를 내용적 품질보다는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껍데기뿐인 '형식성'과 내용의 '편협성'은 더욱 고착화되어 가고 그로 인한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 도서관계에는 목록의 내용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는데 보다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목록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원자료에 대한 식별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제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 요소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제기와 당면

26) 이 부분에 대해 필자는 지금처럼 우리의 편목 업무가 원자료에 포함된 데이터를 단순히 타이핑하는 소모적이고 비전문적인 일로 간주된다면,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생산된 목록이 막상 도서관이용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일에 그렇게 많은 인력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은 편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대학도서관 정보지원과 사서들과의 인터뷰에서 한 편목사서가 털어놓은 푸념을 그대로 옮겨본다: "목록의 중요도는 과거보다 훨씬 증대했다. 따라서 편목 업무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여력이 없다. 그러다보니 수백 개의 도서관에서, 수백 명의 사서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목록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왜 모든 도서관에서 똑같이 만들어야만 하는지 회의가 든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 방법이 최선인지..."

과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로 대변되는 새로운 매체가 도서관에 속속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우리 도서관계의 능력이 너무도 미약하다. 대안을 마련할 만한 능력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우리에게겐 너무도 부족하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공동으로 합심하여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소아적인 경쟁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우리 도서관계에는 너무도 짙게 퍼져있다.<sup>27)</sup>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편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서관계의 자구책이 여러 각도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몇몇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료 구입과 동시에 서지레코드를 구입함으로써 단순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품격 높은 목록을 만드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sup>28)</sup> 다른 한편에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분담편목 (shared-cataloging)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분산체제로 공동목록 DB를 구축하여 단위 도서관이 편목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단위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이용효율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비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단위 도서관의 참여도는 의외로 저조하다. 비교적 큰 규모의 도서관들은 분담편목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한계수익’에 비판적이고, 소규모 도서관들은 분담편목을 ‘한계비용’을 절감

27) 이제환은 우리의 대학도서관정책, 공공도서관정책, 학교도서관정책, 과학기술정보정책에서 우리 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의 ‘부실’이 사서들의 부족한 자질과 안일한 사고, 수동적인 행태와, 문헌정보학자들의 협소한 안목과 부족한 문제의식, 그리고 도서관을 홀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환,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정보정책』, 서울: 한울, 2003.

28) 외부에서 생산된 서지레코드를 구입하는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서지레코드의 품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편목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당장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는 경우도 있다. 즉, 구입한 레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자료와 대조하여 필요없거나 수정이 필요한 극히 일부 데이터만을 수정한 후 바로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 목록의 품질 향상은 크게 기대할 수 없거니와 편목 업무와 편목사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여 오히려 편목 업무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sup>29)</sup> 그러다보니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참여 도서관과 사서들 사이에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는 색이 바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 도서관계의 저력이 바로 비효율적인 업무 구조와 방식을 개선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편목 업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증대하였다. 나아가,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기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업무의 양을 훨씬 적은 인력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목록의 품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비체계적이고 비합리적인 업무 구조의 ‘발전적 해체’이다. 현행 업무 구조와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품질의 고급화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 4.2 관행과 제도에 대한 의문

이처럼 우리 편목 업무의 구조와 방식은 합리적이거나 체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편목사서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목록을 구축하려고 해도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항상 허덕이면서 할당된 업무량을 매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듯 현장의 편목사서들은 연장근무와 외부의 용역 신청을 하면서 겨우 업무를 꾸려가고 있는데, 도서관경영진이나 심지어 동료 사서들조차도 이제는 편

29) 필자는 이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를 절실히 느꼈다. 미국 도서관계는 도서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give and take’ 방식이 철저히 지켜지는 한편, 네트워크를 통해 받는 이익보다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편목사서들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일방적으로 주는 쪽과 일방적으로 받는 쪽이 확연히 구분되면서 쌍방간에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소아적 사고와 행태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 업무가 필요 없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하다. 아웃소싱을 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만든 목록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아 쓰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도서관에서는 편목사서를 감축하고 있다. 도서관 내에서조차 편목 업무의 홀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은 우리 도서관계가 편목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신임’ 사서가 편목 업무에 배정되면 처음에는 업무를 배운다는 긴장감 속에 모든 것을 원칙에 맞추어 수행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관행과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소위 ‘요령’이라는 것이 늘게 된다. 이러한 요령을 ‘능숙함’ 또는 ‘능력 있음’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잘못이 우리 도서관 조직문화에는 폭넓게 퍼져있다. 그러다보니 편목사서는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꿔보려는 생각을 감히 가질 수 없게 된다.<sup>30)</sup> 이에 더해, 우리 도서관의 고질적인 관행인 잦은 부서이동은 편목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순환보직제’가 보편적인 현상이다. 편목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도서관이 거의 없다보니 우리의 단위 도서관에는 ‘편목전문사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편목 업무를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사서가 있을 뿐이다.<sup>31)</sup>

이러한 인사방식 내지 보직제도는 한 업무 혹은 한 부서에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조직의 관행에서 비롯된

30) 이러한 분위기는 편목사서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감지되었다. 한 사서는 목록에 수록된 내용의 빈약함을 보충하고 이용자의 검색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느라 업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한다. 그 결과, 상급자로부터 업무 보조가 맞지 않아 다른 편목사서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충고를 들었다. 심지어 ‘1일 할당량’을 정해 정규 업무 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근무의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끝내라는 ‘압력’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편목사서가 업무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노력을 부추기고 격려하기는커녕, 아직까지 ‘관행’과 ‘관성’에 젖어 ‘폐도’를 이탈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도서관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다.

31) 김정근은 우리 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운영주체의 부재현상’에 있다고 말한다. 즉, 대학도서관의 인적 구조를 보면, 대학총장-도서관장을 축으로 한 리더십 구조의 허위성과 전문직임을 자처하는 사서직 사람들의 낮은 기량이 서로 어떤 타협점을 찾아 안정성을 구축한 듯한 모순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한울, 1995, pp 38-39

다. 순환보직제는 개인이 업무의 타성에 젖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을 제외하고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에서 순환보직제를 시행하는 직종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순환보직제는 직업 종사자가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인해 우리 도서관에서 편목 '전문' 사서를 양성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정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쌓일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 다른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편목 업무를 다시 맡게 되면 그동안 망각한 경험적 지식을 되찾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미국 도서관의 사례를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미국 도서관에서 편목 업무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편목사서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있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도서관의 '사서채용' 광고를 보면, 국내의 상황과 달리 직무별 전문사서를 모집하고 있다. 가령, 채용정보에는 'cataloger', 'cataloging librarian', 'technical service librarian', 혹은 'faculty director of cataloging department' 등이 명시되어 있다. 채용당시부터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채용 광고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 학위를 취득한 후 최소한 1년간의 현장 실습을 통해 특정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학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공급받고, 도서관 현장을 통해 실무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했을 때 비로소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편목사서로 채용된 후에도 '신참' 편목사서에 대한 교육은 계속된다. 고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고참' 편목사서들이 '신참' 편목 사서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고참 편목사서들은 신참 편목사서들이 편목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들이 생산한 목록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검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조직의 구성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때, 조직의 생산성은 물론이고 그 품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는 20년 이상 편목 업무를 수행해 온 중견사서들과의 인터뷰



에서, 그들은 신참 편목사서들이 편목 업무를 추진해 나갈 명실상부한 운영주체로 자립하기까지 적어도 3-4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정해진 규칙이나 형식에 충실히 따르는 기술과 기능을 익히는데 급급하다가 3-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업무에 대한 지식과 능숙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의 편목 업무가 품질의 개선은 고사하고 품질의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당연한 결과임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 도서관에는 편목 '전문' 사서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 없고, 신참 사서를 이끌어줄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고참 사서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들이 전문 편목사서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서 바로 순환보직이 적용되는 때이다.<sup>32)</sup> 더욱이, 편목 업무에 능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참 사서들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현행 업무에서 손을 떼고 행정직으로 물러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관행화되어 있다보니 현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편목 업무에 대한 관행과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결국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을 기저로 하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론적 기초와 제도적 기반이 허약하다보니, 우리 도서관에서의 편목업무는 디지털로 대변되는 새로운 매체의 유입에 당면하여 또 다른 혼돈과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전통적인 목록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편목 업무에 요구되는 '고유의 전문성'을 어떻게 계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디지털'에 마음을 빼앗긴 채 '대체' 시스템이 서둘러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디지털 자원을 조사·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보다는 또다시 외부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첨단 시스템의 도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지적 토대와 토양을 마련하는데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32) 일전에 필자가 23개 대학도서관의 157명의 편목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조사 시기: 2003년 3월), 설문에 응한 편목사서 112명이 도서관에 근무한 총 연수는 평균 12년이었으며, 이 중 편목사서로 근무한 연수는 평균 4년이였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서이동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5. 논의를 마치며

필자는 단순히 미국 도서관계의 편목 업무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행해온 업무 구조와 방식을 답습 하자는 의미는 더욱 아니다. 이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은 미국 도서관에서의 편목 업무를 실무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해 보고, 그들의 편목 업무에 내재된 지적 관행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편목 업무가 과연 얼마나 적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필자는 평소 현실에 대한 근원적 문제가 계속 기피됨으로써 학술적 탐구와 도서관 현장의 실무 사이에 틈새가 메워지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성한 정책과 방안의 등장과 각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은 제각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헤쳐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도서관이용자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부족한 가운데 도서관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급급하였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록의 형식과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도 없었고, 더욱이 그들의 목록이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 모양새를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주변’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 더욱 ‘중심’의 연계 줄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욕심이었다. 전자가 목록의 ‘표준화’ 혹은 ‘국제화’라는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후자는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다. 기초에서부터 너무도 부실하였던 우리 도서관계가 이러한 논리를 좇아 가려다보니, 우리는 형식 그것도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만일 외형적 모양새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고자 했다면, 아니, 최소한 외형적 모양새나마 ‘철저히’ 모방하고자 노력했다면, 지금처럼 편목 업무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도서관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에 대처하기 위한 지적 도구로서 최소한의 조건이나마 갖추려고 노력을 해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문화의 산물인 것처럼 도서관에서의 편목 업무 또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해당 사회의 지식과 정보문화를 대변하는 편목 업무에는 이를 만들어낸 사회의 고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지적 행태가 그대로 녹아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의 편목 업무는 ‘토착적’이기보다는 ‘미국 추수적’인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도 업무에 바탕하고 있는 철학과 가치는 빠뜨린 채 외형만을 쫓아가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편목 업무는 이용자 중심적이기보다는 기관 중심적이 되어 있고,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

필자는 우리 목록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서관문화와 이용자의 행태에 적합한 목록을 만들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물론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국제적 표준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고유의 지적 문화와 행태를 대변하는 토착적인 가치를 지닌 정보도구들을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표준성’이라는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토착성’이라는 내용이 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동안 우리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목록을 자생력 있는 지적 도구로 거듭나게 만들려는 노력을 너무도 게을리 하였다. 이제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선진국의 이론과 시스템에 의존하여 조직하고 관리하는 현재의 행태에서 벗어나 우리의 도서관정보환경과 문화에 적합한 ‘토착적인’ 이론과 업무 방식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